

영적기류분별반

영과 진리로 분별하는 지혜의 여정

데이빗리목사 지음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목차 CONTENTS



서 론 들어가는 말 _ 5

제 1 장 영적분별의 성경적 기초와 원리 _ 9

제 2 장 개인의 심령과 내면의 기류 분별 _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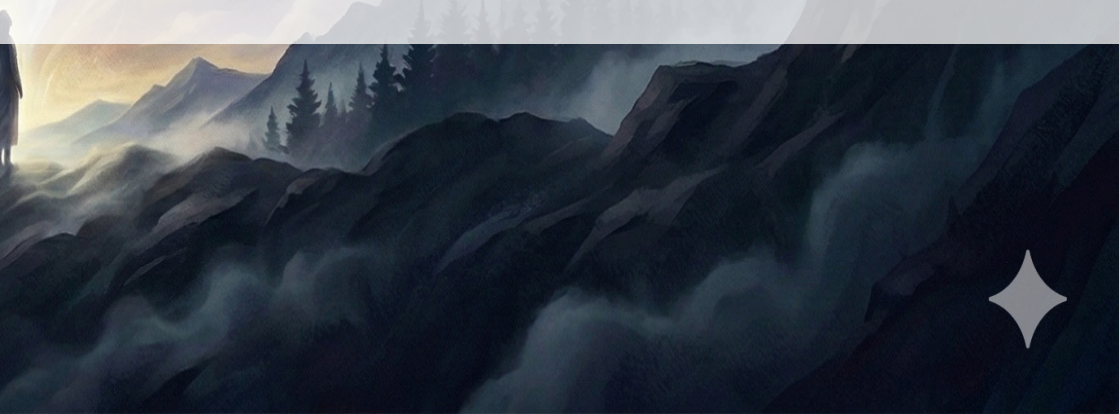
제 3 장 가정의 영적흐름과 세대간의 유업 _ 24

제 4 장 교회공동체의 영적기류와 질서 _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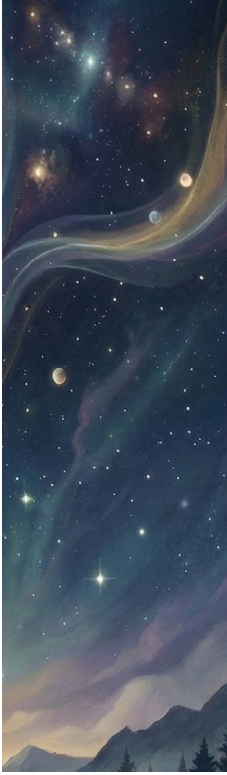
제 5 장 지역사회와 세상문화의 영적지형도 _ 38

제 6 장 대적의 전략과 영적전쟁의 실제 _ 47

제 7 장 영적기류를 바꾸는 통로 _ 54







서 론

/

들어가는 말

영적 기류를 분별<아나크리노> 하는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부르심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심령부터 가정의 분위기, 교회 공동체의 영성, 더 나아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에는 저마다의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듯 평온하고 거룩하지만, 어떤 곳은 이유 없는 중압감과 갈등, 혹은 차가운 냉소가 지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명하십니다 [롬 12:2].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러한 영적 흐름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채, 그저 환경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감정의 기복에 휘말려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곤 합니다. 기류를 읽지 못하는 파수꾼은 적의 침투를 방어할 수 없으며, 대기가 오염된 줄 모르는 사람은 서서히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기류 분별반'은 단순히 영적인 지식을 쌓거나 신비한 체험을 좇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를 둘러싼 영적 대기를 정밀하게 분별<아나크리노> 하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여기서 분별<아나크리노> 하는 것이란,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모든 증거를 살피어 대조하여 진실을 규명하듯, 현상 배후에 숨겨진 영적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척도로 조사하고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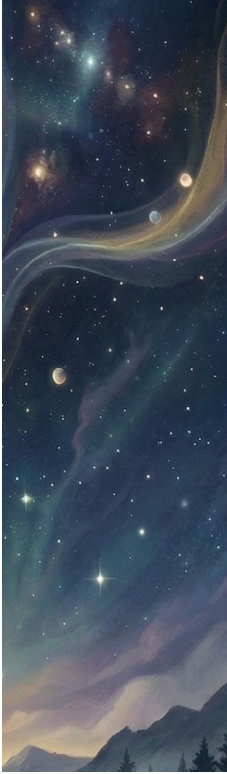
우리가 영적 기류를 읽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너진 영적 성벽을 발견하여 재건하고, 생명의 흐름이 막힌 곳을 기도로 뚫어내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어둠의 기류를 몰아내고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영적 대기 정화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본 교재는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나 자신의 심령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 사회의 영적 지형도를 그리는 법을 단계별로 다룹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대적의 간계를 파쇄하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는 실제적인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성실히 마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주변 기류에 휩쓸려 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류를 새롭게 창조해 내는 '하늘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 열리고, 삶의 지경이 새롭게 변혁되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2026년 3월 대부흥크루세이드 첫째날
데이빗리목사





제 1 장

/

영적분별의 성경적 기초와 원리

제 1 장 영적분별의 성경적 기초와 원리

도입내용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아나 크리스노> 하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말씀의 척도로 현상 너머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분별의 첫걸음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1. 영적 분별의 정의와 성경적 근거

가. 분별의 성경적 정의: 현상 너머의 실체를 보는 눈

(1) 우리가 배우는 '영적 분별'은 단순히 예리한 감각이나 세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현상과 분위기 배후에 어떠한 영적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가려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2) 성경은 이를 '판단'(분별)<아나크리노>라고 표현합니다(고전 2:15). 이 단어는 사법적인 용어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전 증거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을 뜻합니다. 즉, 영적 기류를 분별한다는 것은 막연한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아래에서 기류의 정체와 근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고전 2: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나. 분별의 주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신령한 안목

(1)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고전 2:14).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로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별의 실제적인 주체는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2)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 영적 기류를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한 초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여됨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고전 2:16).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혼탁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고전 2: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2. 분별의 기초가 되는 구속사적 원리

가. 타락으로 인한 영적 분별력의 상실

(1) 인류의 타락은 곧 '분별의 파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려 했던 교만이었습니다(창 3:5-6). 이 사건 이후 인간은 영적 기류를 읽는 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2) 안목이 어두워진 인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조성하는 어둠의 흐름을 거룩한 문화나 지혜로운 유행으로 착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엡 2:2). 분별력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대적의 꾀계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구속사를 통한 안목의 회복과 새로운 통치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골 1:13). 이 구원 사역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도록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창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골 1: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2) 이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여 이 땅의 영적 지형도를 바꾸어 나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롬 12:2).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영적 기류를 분별하는 핵심 원리

가.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 원리

(1) 영적 기류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시 119:105). 인간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마음의 뜨거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한글개역판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서 분별할 때, 우리는 대적의 간교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 영적 열매와 근원의 원리

(1)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20). 특정 영적 기류가 유입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명확한 분별법입니다.

[마 7: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 그 기류가 흐르는 곳에 두려움, 혼란, 미움, 분열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낯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사랑과 평강과 거룩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갈 5:22-23). 열매는 그 기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영적 명표와 같습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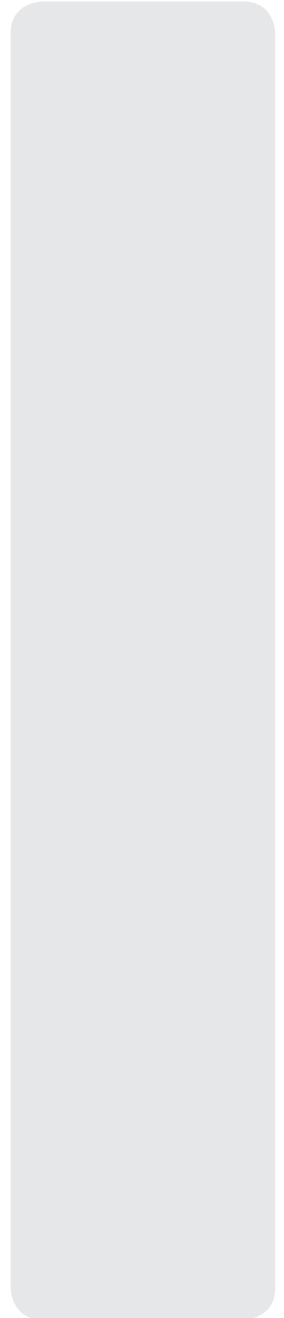
다. 영적 파수꾼과 대처의 원리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겔 3:17). 기류를 읽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류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실천적인 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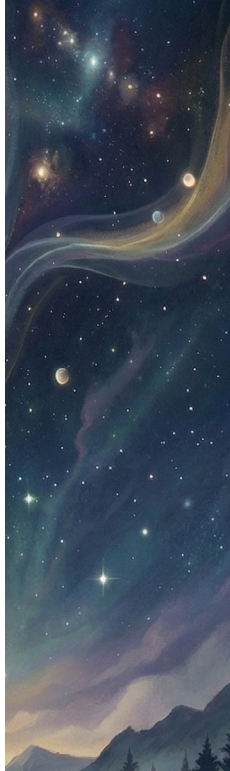
[겔 33:7]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계 할찌어다

(2) 내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에 흐르는 영적 기류를 살피고 어둠의 흐름을 차단하며, 기도의 향연을 통해 하늘의 거룩한 공기가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분별을 통해 대적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삶으로 나아

가야 합니다.







제 2 장

/

개인의 심령과 내면의 기류 분별

제 2 장 개인의 심령과 내면의 기류 분별

도입내용

가정과 공동체의 기류를 읽기 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면의 쓴 뿌리와 우상은 영적 안목을 가리는 소음이 됩니다. 보혈로 양심을 씻고 성령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맑은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내 안의 영적 대기를 정화하여 거룩한 통로로 거듭나는 훈련입니다.

1. 내면 기류 분별의 중요성

가. 마음의 파수와 영적 흐름의 시발점

(1)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잠 4:23).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외부의 영적 기류가 유입되는 관문인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행불행이 결정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흐름을 결코 객관적으로 <아나크리노> 할 수 없습니다.

[잠 4:23]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 영적 기류 분별의 첫 번째 훈련 장소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입니다. 깨끗한 안경을 써야 사물이 똑바로 보이듯, 분별의 파수꾼은 먼저 자기 심령의 거울을 닦아 성령의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 마음을 장악하는 영적 동기 분석

(1) 우리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숨은 욕망이나 세상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인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요일 4:1). 분별은 느낌에 속지 않고 그 느낌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2)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쓴 뿌리, 비교 의식, 혹은 은밀한 우상은 영적 분별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영적 소음'이 됩니다. 내 안의 기류가 지금 무엇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모든 영적 훈련의 기초가 됩니다.

2. 내면 기류의 구속사적 정화

가. 보혈을 통한 양심의 씻음과 민감성 회복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덮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히 9:14).

(2) 보혈로 정결해진 심령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집니다. 어둠의 기류가 슬며시 침투하려고 할 때, 즉각적인 거부감과 경계심을 느끼게 되는 '영적 면역력'은 오직 십자가의 정결함 속에서만 흘러나옵니다.

나. 성령의 내주와 평강의 통치권 확립

(1)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권을 완전히 잡으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골 3:15). 이 평강은 단순히 감정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에 온전히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2) 이 '평강의 기류'는 영적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불안, 조급함, 혹은 정죄감이 엄습한다면, 그것은 현재 내 영적 대기에 비정상적인 흐름이 침투했다는 신호임을 즉각 알아차려야 합니다.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골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 심령의 기류를 관리하는 실제적 훈련

가. 영적 민감성 유지를 위한 거룩한 습관

(1) 매일의 진실한 회개와 말씀 묵상은 심령의 거울을 닦는 파수꾼의 일과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마 5:8), 영적 민감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내면의 미세한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의 파도에 속지 않고, 내 영의 본질적인 깊은 곳에서 흐르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구별해 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으나 성령의 기류는 언제나 진리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나. 영적 대기 정화를 위한 선포와 대처

(1) 내면에 부정적인 기류나 영적 침체가 감지될 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의지하여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대적의 기류를 꾸짖고 물리쳐야 합니다(약 4:7).

(2)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선포를 통해 내 마음의 대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파하리라

기를 거룩하게 바꾸십시오.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회복될 때, 그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이 주변의 모든 마른 기류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요 7:38).

[요 7:38] 나를 믿는 자
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제 3 장

/

가정의 영적 흐름과 세대 간의 유업

제 3 장 가정의 영적 흐름과 세대 간의 유업

도입내용

가정은 영적 기류가 가장 밀착되어 나타나는 언약의 현장입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는 자녀가 마시는 공기가 되며, 세대를 타고 흐르는 기류는 가문의 영적 지형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내고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이자 복의 통로로 세우는 원리를 배웁니다.

1. 가정의 영적 기류와 파수꾼의 사명

가. 가정: 영적 기류가 가장 밀착되어 나타나는 현장

(1)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민낯이 드러나는 최전방 전쟁터입니다. 가정 내에 형성된 영적 대기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신앙 정서와 삶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장들에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강조하며,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영적 권위의 기초가 됨을 분명히 말씀

합니다(딤후 3:4-5).

(2) 만약 우리 가정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다툼이 반복되거나, 차가운 침묵이 흐르며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피로감이나 성격 차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상 배후에서 가정의 화평을 도둑질하고 불신의 씨를 뿌리려는 영적 흐름이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성령의 조명 아래 <아나크리노> 해야 합니다.

나. 부모의 영적 상태가 결정하는 가정의 대기 질

(1)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하고 따뜻한 기류를 형성할 때, 자녀들은 그 은혜의 대기 속에서 숨 쉬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엡 6:4). 부모의 무릎 꿇는 뒷모습이 자녀에게는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한 영적 기류의 이정표가 됩니다.

(2) 반대로 부모의 심령이 세속적인 염려나 혈기, 은밀한 정죄의 기류에 장악되어 있다면 자녀들은 그 탁한 영적 공기를 마시며 영적 질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집안을 감싸고 있는 영적 대기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분별의 핵심입니다. 오

[딤후 3: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딤후 3: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엡 6:4]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늘 우리 가정의 대문 안쪽에는 과연 생명의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까?

2. 세대 간의 흐름과 구속사적 전수

가. 가계의 흐름과 죄의 영향력에 대한 영적 분석

(1)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언약을 가문을 통해 계승하시지만,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성 또한 세대를 타고 흐를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출 20:5). 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가문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가졌던 잘못된 영적 태도와 어둠의 습관들이 자녀 세대에게 영적인 취약점이 되어 비슷한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게 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2) 만약 가문에 반복되는 중독, 분노, 음란, 혹은 지독한 가난의 기류가 있다면, 이는 그 가문의 영적 성벽이 무너진 곳을 통해 어둠이 드나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기류를 예리하게 분별하여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십자가의 권세로 끊어내야 할 구속사적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나. 언약의 전수와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류를 통해 복을 전수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창 26:3-5).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 와 신실한 순종이 쌓인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방어막이 형성되어 후손들을 보호하고 환난 중에도 일어설 힘을 공급합니다.

(2)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언약 공동체'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정 안에서 드리는 무명의 예배와 작은 순종이 우리 자녀 세대의 영적 기류를 결정짓는 거룩한 씨앗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거룩한 기류를 선택하면 우리 가문은 복의 근원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3. 가정의 기류를 새롭게 하는 실제적 대처 원리

가. 제사장적 회개와 영적 성벽의 재건

(1) 가정의 기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제사장적 회개'입니다. 가족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그 허물을 내 죄처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혔던 영적 기류가 뚫리기 시작합니다(단 9:20).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온 가족의 영적 대기를 정화하는 샘물과 같습니다.

[창 26:3]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하여

[창 26: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 26: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단 9:20]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 무너진 가정의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십시오. 거실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식탁에서 따뜻한 말씀의 나눔이 시작될 때, 가정 내에 머물던 어두운 기류는 견디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하며, 그 임재의 향기가 가득할 때 모든 어둠의 기류는 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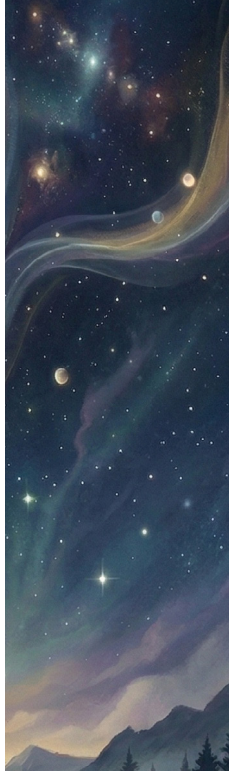
나. 언어의 정화와 축복의 권세 사용

(1) 언어는 보이지 않는 영적 기류를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무심코 내뱉는 비난, 비꼬는 말, 저주의 말을 멈추고 성경적인 축복과 감사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음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영적 대기 청정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2) 매일 가족 구성원을 향해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보배로운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정의 영적 흐름을 사망에서 생명의 기류로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제 4 장

/

교회공동체의 영적기류와 질서

제 4 장 교회 공동체의 영적 기류와 질서

도입내용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 흐르는 시기와 분열의 기류를 분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의 질서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본주의의 침투를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치하는 교회를 재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거룩한 사랑의 기류를 형성하는 법을 나눕니다.

1.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 기류와 질서

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적 연결성

(1) 교회는 단순한 사회적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듯, 교회 공동체 내의 영적 기류는 모든 성도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흐릅니다(고전 12:26-27). 따라서 한 사람의 영적 상태나 소그룹의 분위기는 공동체 전체의 대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전 12: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분이라

(2) 공동체 안에 흐르는 기류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심이나 세속적인 질서에 치우쳐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사나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넘어, 그 배후에 흐르는 영적인 동기를 <아나크리노> 하여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 영적 질서와 권위의 기류

(1)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4:33). 교회 공동체 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존재하며, 이 질서가 순리대로 흐를 때 공동체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중의 기류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영적 뼈대와 같습니다.

(2) 만약 공동체 내에 질서를 무시하는 거역의 영이나, 비방과 수군거림의 기류가 감지된다면 이는 공동체의 영적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기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공동체를 분열로 몰아가기 때문에 파수꾼의 예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고전 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2. 공동체 기류를 흐리는 방해 요소 분별

가. 시기와 분쟁의 기류에 대한 구속사적 경계

(1) 초대 교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공동체가 부흥할 때 반드시 대적의 방해가 뒤따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사도행전 5장)이나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원망(사도행전 6장)은 공동체 내부의 영적 기류를 오염시키려는 전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대적은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지체들 사이에 묘한 경쟁심, 비교 의식, 혹은 소외감이 흐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치성을 깨뜨리려는 영적 공격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나. 인본주의와 형식주의의 유입 분별

(1) 복음의 생명력보다 인간의 전통이나 형식이 앞서게 될 때, 공동체의 기류는 경직되고 메마르게 됩니다 (마 15:9).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고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게 되면, 공동체는 영적 활력을 잃고 세속적 가치관에 쉽게 동화됩니다.

(2)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이나 편의가 우선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기류를 걷어내고 성령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인정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기류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3. 공동체의 기류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통로

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태도

(1) 분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될 때, 파수꾼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엡 4:3).

(2) 기도로 영적 대기를 정화하십시오. 소수의 깨어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공동체에 머물던 어둠과 혼란의 기류는 물러가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나. 화평케 하는 자의 언어와 주도권

(1)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말의 기류를 선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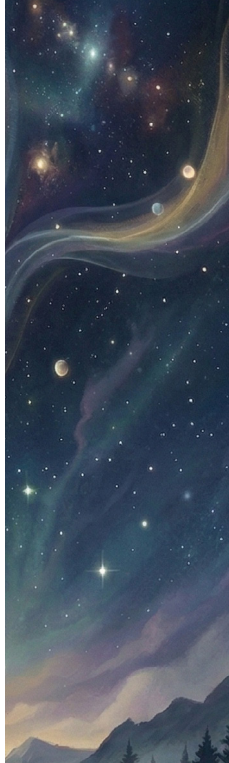
[엡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야 합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이 퍼지기 전에, 격려와 세워주는 말, 그리고 믿음의 선포가 공동체 전반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엡 4:29).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들이 뿌린 화평의 씨앗은 공동체의 영적 지형을 비옥하게 바꿉니다.

[엡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사랑의 기류로 충만할 때, 세상은 그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영적 기류를 정화하여 세상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거룩한 안식처를 재건해야 합니다.





제 5 장

/

지역사회와 세상문화의 영적 지형도

제 5 장 지역사회와 세상문화의 영적지형도

도입내용

우리가 사는 지역과 문화 배후에는 그 땅을 장악하려는 영적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음란, 우상 숭배, 분열, 맘몬의 기류를 <아나크리노> 하여 영적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세상 풍조에 함몰되지 않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남은 자로서, 내가 머무는 지역의 영적 대기를 중보와 예배로 정화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일깨우는 장입니다.

1. 지역 사회에 흐르는 영적 기류의 실체

가. 도시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지형도

(1)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지역에는 각기 다른 고유한 영적 색채와 기류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특정 지역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그 땅의 가치관과 문화를 왜곡시키는 영적 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언급된 '바사 국군'이나 '헬라 군'과 같은 존재들은, 지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흐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함

[단 10:13] 바사 국군이
이십 일일 동안 나를 막
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
사 국 왕들과 함께 머물
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
와주므로

[단 10: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국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국군
이 이를 것이라

니다(단 10:13, 20).

(2) 파수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회적 현상 너머를 <아나크리노> 하여, 그 땅을 억누르고 있는 영적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이를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 * 음란과 음녀의 기류: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거나 도덕적 타락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지역에는 '음란의 영'이 강력한 기류를 형성합니다. 성경 속 에베소의 아데미 숭배나 고린도의 음행처럼(계 17:1-5), 오늘날에도 특정 지역의 가정을 파괴하고 청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음녀의 기류가 흐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너머에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더러운 영적 기류를 분별하여 거룩의 수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 * 우상 숭배와 종교적 견고한 진: 오래된 사찰이나 무속 신앙이 깊이 뿌리박힌 지역, 혹은 이단 사이비의 거점이 된 지역에는 '미혹의 영'과 '종교의 영'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영적으로 매우 무겁고 답답하며 복음 전파에 강력히 저항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행 17:16), 우리는 그 땅을 억누르는 거짓 신들의 통치를 기도로 파쇄해야 합니다.

[계 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계 17: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계 17: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계 17:4]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계 17: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행 17:16]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다.

- * 이념적 갈등과 분열의 기류: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거나 계층 간의 갈등이 깊은 지역에는 사단이 '분리하는 자'로서 역사합니다. 서로를 원수로 보게 만드는 증오와 시기, 당 짓는 것(갈 5:20)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악한 영적 기류입니다. 이념의 독소를 분별하고, 그 배후에서 갈등을 먹고 사는 분열의 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의 기류로 밀어내야 합니다.
- * 물신주의(맘몬)와 탐욕의 기류: 경제적 풍요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된 지역에는 '맘몬의 영'이 강력하게 군림합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 된 이 기류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비교와 조급함, 성공을 향한 눈먼 질주로 내몰습니다(마 6:24). 탐욕의 기류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갈 5: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침투하는 영적 기류

(1) 영적 기류는 대개 노골적인 악의 모습이 아니라 '문화'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침투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영상, 음악, 유행하는 철학들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넘어 특정한 영적 가치관을 실어 나르

는 수레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 세상 풍조'라 부르며 경계합니다(엡 2:2).

(2) 대중문화 속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인본주의, 허무주의, 혹은 성경적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기류들을 예리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 없이 문화를 수용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희석되고 세상의 기류에 동화되어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 세속화의 물결과 남은 자의 분별력

가. 세속화<코스모스>의 기류와 영적 타협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자기의 틀 속에 집어넣어 동질화시키려 합니다(롬 12:2).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코스모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구축하려는 체계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세속화의 기류는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속삭이며 복음의 절대성을 상대적인 것으로 격하시키려 합니다.

(2)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가 어때?"라는 생각은 세속적 기류가 우리 심령에 안착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

[엡 2:2]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들과 똑같은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이미 그 시대의 탁한 기류에 매몰된 상태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 시대를 역행하는 거룩한 저항력

(1)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마다 세상 기류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왕상 19:18).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당대의 패역한 기류를 거슬렀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세상의 흐름에 단순히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저항력을 가져야 합니다.

(2) 영적 기류를 분별하는 자는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기에, 그 끝이 멸망임을 선포하며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구속사적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영적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는 자들입니다.

3. 지역 사회의 기류를 바꾸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가. 땅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중보의 권세

(1)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왕상 19: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대기를 정화하기 위해 무릎 꿇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위해 축복하며 그 땅의 죄악을 대신 회개할 때, 어둠의 기류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2)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기류가 지역 사회의 영적 오염을 씻어내고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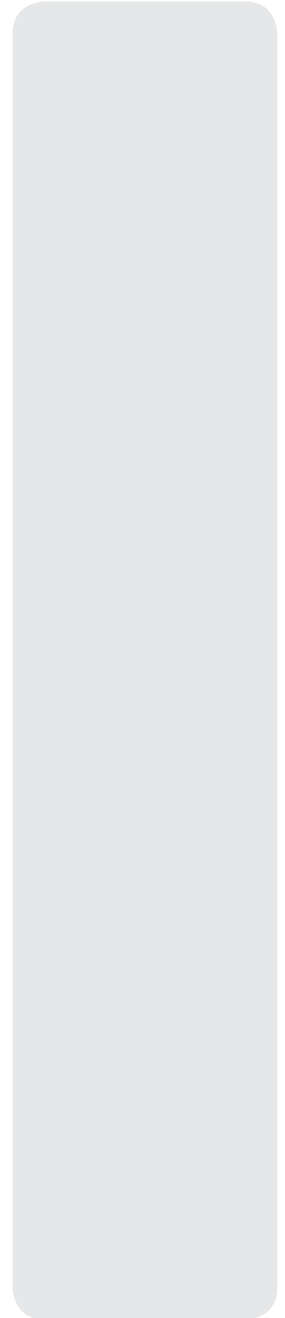
나. 빛의 자녀로서 산 위의 동네가 되는 삶

(1) 영적 기류 분별의 최종 목적은 대처와 변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기류를 탓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자들입니다(마 5:14). 성도의 정직한 삶, 사랑의 실천, 복음의 선포는 지역 사회의 탁한 기류를 정화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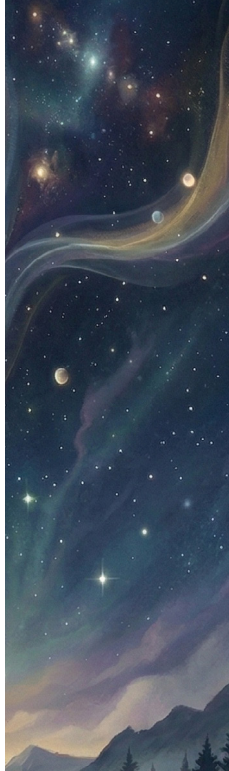
(2) 내가 머무는 직장, 학교,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의 기류가 세상의 불안과 갈등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할 때, 지역 사회는 우리를 통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기류에 압도될 것입니다.







제 6 장

/

대적의 전략과 영적전쟁의 실제

제 6 장 대적의 전략과 영적 전쟁의 실제

도입내용

대적은 두려움과 정죄, 분열의 간계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싸움입니다. 마귀의 전술을 간파하고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와 찬양의 능력을 사용하여 어둠의 진을 파하고, 무너진 영적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실제적인 승리의 비결을 학습합니다.

1. 대적의 전략과 영적 기류의 왜곡

가. 간계<메도데이아>를 통한 교묘한 침투

(1)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궤계' 혹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엡 6:11). 여기서 간계<메도데이아>는 '추적하다', '매복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적은 노골적인 공격보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세밀하고 교묘하게 영적 기류를 왜곡시키며 다가옵니다.

[엡 6:11]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2) 대적의 주된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고후 11:14) 우리 내면에 슬그머니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거나, 공동체 안에 은밀한 오해의 기류를 조성합니다. 파수꾼은 현상 아래 감추어진 대적의 의도를 <아나크리노> 하여,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기복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영적 공격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나. 대적이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기류: 두려움, 정죄, 분열

(1) 두려움의 기류: 대적은 환경과 상황을 과장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마비시키고 영적 안목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기억하며(딤후 1:7), 공포를 조장하는 기류를 거부해야 합니다.

(2) 정죄와 참소의 기류: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계 12:10). 성도의 과거 실수를 들추어내어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는 복음의 기류로 이 참소를 물리쳐야 합니다.

[고후 11: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딤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 분열과 인간의 기류: 대적은 관계의 틈을 탑니다. 작은 오해를 증폭시켜 가정과 교회의 일치성을 깨뜨립니다. 비방과 수군거림이 흐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대적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독소를 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 구속사적 승리와 영적 전쟁의 권세

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권

(1)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승리를 '지키고 선포하는' 싸움입니다. 주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골 2:15).

(2) 구속사적으로 볼 때, 대적은 이미 머리가 상한 패배자입니다(창 3:15). 우리가 영적 기류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근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 속에서 어둠의 기류를 꾸짖는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영적 방어막

[골 2:15]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야 합니다(엡 6:14-17).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튼튼히 세워져 대적이 틈탈 기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특히 '믿음의 방패'는 대적이 쏘는 모든 화전(불화살)을 소멸합니다. 환경의 기류가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류가 우리를 감쌀 때 대적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3. 기류를 역전시키는 실제적 대처 원리

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대적 기도의 능력

(1) 부정적인 영적 기류가 감지될 때, 성도는 즉각적으로 '대적 기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흔드는 분열의 기류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약 4:7).

(2) 대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권세를 깨닫고 선포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상황에 함몰되어 탄식하기보다, 만왕의 왕의 대리자로서 환경을 향해 명령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엡 6: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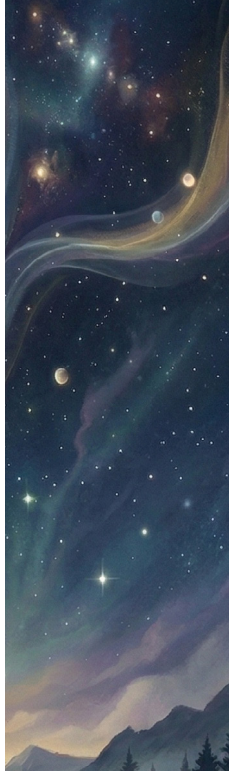
나. 찬양과 감사를 통한 영적 대기 정화

(1)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다윗의 수금 연주 앞에 떠나갔던 것처럼(상상 16:23),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어둠의 기류를 몰아내고 하늘의 기쁨을 불러옵니다.

(2) 감사는 불평의 기류를 일순간에 정화합니다. 대적이 심어놓은 원망의 가시들을 감사의 선포로 뽑아내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장소의 영적 지형도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승리의 동산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삼상 16:23]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
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
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
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
나더라





제 7 장

/

영적 기류를 바꾸는 통로

제 7 장 영적 기류를 바꾸는 통로

도입내용

분별의 최종 목적은 상황을 읽는 것을 넘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메마른 세상을 적시게 하십시오. 일상의 순종과 예배를 통해 거룩한 대기권을 창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류를 전파하는 하늘의 대사로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1. 분별을 넘어 변혁으로 나아가는 사명

가. 영적 기류의 수동적 수용에서 능동적 창조로

(1) 영적 기류 분별반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주변의 흐름을 읽고 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탁한 기류를 성령의 신선한 공기로 바꾸어 놓는 '영적 기류의 창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맛을 내는 존재임을 천명합니다(마 5:13-14).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2) 주변의 기류가 어둡고 무겁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의 영적 대기를 정화할 '통로'로 세우셨다는 신호입니다. 상황을 탓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치권을 사용하여 그곳의 영적 질서를 재편하는 영적 주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통로의 원리

(1)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7:38).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의 역동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기류가 주변의 마른 땅을 적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2) 우리는 영적 기류를 <아나크리노> 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동시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참된 권세입니다.

2. 성령의 다스림과 거룩한 습관의 정착

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과 영적 민감성 유지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1) 영적 기류를 바꾸는 힘은 일회적인 열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속성'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엡 5:18). 성령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 삶의 궤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기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2) 영적 안목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는 거룩한 습관을 정착시키십시오. 내면의 소음이 잦아들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복잡한 세상의 기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 순종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 참여

(1)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 땅의 영적 지형도를 바꾸어 갑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가나안 땅의 영적 기류를 바꾸었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은 거대한 어둠의 기류를 꺾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엡 1:10),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사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쌓일 때, 우리 가정과 교회, 지역 사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엡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3. 기류를 새롭게 하는 성도의 실제적 삶

가. 일상의 예배를 통한 거룩한 대기권 형성

(1) 특별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롬 12:1).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곳의 영적 대기권은 거룩하게 정화됩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고후 2:15).

(2)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개인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방어막을 형성하며, 이 방어막은 대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기도의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를 통해 흐르는 평안의 기류를 맛보게 됩니다.

나. 사랑과 화평의 주권적 선포

(1)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에 '축복의 주권'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비난하고 저주할 때, 우리는 도리어 축복하고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롬 12:14).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후 2: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롬 12:14]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곳의 영적 기류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2)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 (롬 14:17)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세 가지 가치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기류 분별반'의 과정을 마친 하늘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적기류분별반 교재

초판 발행 2026. 3. 2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퍼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